

# ‘서역인’ 인가 ‘서역인 이미지’ 인가

## 통일신라미술 속의 서역인식

林 玲 愛\*

- I. 문제제기
- II. 唐代 미술에 나타난 ‘서역인’
- III. 통일신라시대의 ‘서역인’ 접촉 및 도래 가능성
- IV. ‘서역인’ 인가 ‘서역인 이미지’ 인가
- V. 맺음말: 한국 고대미술 속의 서역인식

### I. 문제제기

통일신라시대에 ‘서역인’<sup>1</sup>들이 이 땅에 도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성과는 많다.<sup>2</sup> 단순히 서역인들이 통일신라에 도래하였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적

\*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sup>1</sup> 이 글에서의 ‘서역인’은 특별한 한 인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唐代 장안을 활보하던 외국인들 중 中國以西의 사람들을 통칭한다. 唐代에는 외국인을 ‘蕃人’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서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sup>2</sup> 이난영, 「통일신라와 서역」, 『石堂論叢』 제20집(1994), pp. 165-185; 무함마드 칸수, 『신라 서역교류사』(단국대학교출판부, 1992), pp. 313-442; 신형식, 「신라와 서역: 신라문화 국제화과정의 一考」, 『신라문화』 제8집(1991), pp. 117-126; 김병모, 「고대 한국과 서역관계」, 『한국학논총』 제14집(1988), pp. 5-18.



도1 元聖王(在位 785-799)陵(掛陵) 무인상,  
257cm,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도2 胡人像, 경주 구정동 방형분 모서리 기둥,  
73.0×31.0cm, 국립경주박물관

극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섭취”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sup>3</sup> 그 결과 마치 당시 수도 경주에는 深目高鼻의 서역인들이 신라인들과 서로 섞여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을 것 같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게도 한다. 좀더 논의를 진전시켜 남겨져 있는 서역인상도 1,2의 얼굴이 그들의 모습을 직접 실견하고 그들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연구성과도 적지 않다.<sup>4</sup>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는 한국과 서역의 관계에 관한 폭넓은 관심을 갖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최근 쏟아져 나오

3 민병훈, 「실�크로드를 통한 역사적 문화교류」,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소나무, 1999), pp. 82-87.

4 민병훈, 앞의 글, pp. 82-87; 이재중, 「통일신라시대 왕릉앞 石人연구」, 『碩學 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1996), p. 823; 권영필, 「慶州 掛陵人物石像 再考: 이란系武人 위구르系 文人石像」, 『미술자료』 제50호(1992)(『실�크로드미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1997, pp. 164-180); 무함마드 칸수, 앞의 책, p. 272; 변영섭, 「掛陵考」, 『梨大史苑』 제12집(1975), pp. 70-71.

고 있는 비전공자들의 검증되지 않은 산문류의 관련 서적들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물론 이 글은 서역인들이 이 땅에 도래하였다 혹은 그렇지 않았다는가, 도래한 숫자가 많다 혹은 적다든가 하는 등의 이미 진부해진 논의를 다시 하려는 것이 아니다.<sup>5</sup> 문제는 통일신라인들이 그들을 실견했다고 해서 바로 이미지의 표현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唐에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실견을 토대로 또 다시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을 것인가, 아니면 唐에서 만들어진 '서역인 이미지'를 차용하였을까. 바꾸어 말하면 과연 통일신라 유물에 표현되어 있는 서역인상은 통일신라인의 눈으로 바라본 '서역인'의 모습일까, 아니면 중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서역인'의 이미지를 빌린 것일까의 문제이다.

## II. 唐代 미술에 나타난 '서역인'

唐代(618-907) 장안에는 3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지만<sup>6</sup> 실제로 唐代 미술 속에 남겨진 외국인의 모습은 몇 종류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深目高鼻의 서역인 모습이다. 서역인들은 인종에 따라 여러 가지의 얼굴 형태로 나눌 수 있겠지만 당대 미술 속에서 보여지는 '서역인' 얼굴은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넓적한 얼굴에 부리부리하고 커다란 눈, 높고 큰 코, 술이 많은 수염, 그리고 머리에는 위가 뾰족한 胡帽<sup>7</sup>를, 몸에는 깃이 양쪽으로 벌어진 胡服을 입고 있

<sup>5</sup> 개인적으로는 신라인들이 서로 간에 '적극적인 인적 교류'가 가능하였을 만큼 深目高鼻의 서역인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었을까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sup>6</sup> 당시 장안의 백만 인구 중 외국인인 대략 2%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dward H. Schafer,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1963), pp. 10-11, 14-22. 외국인들은 군인, 전쟁포로, 노예, 인질뿐만 아니라 예능 분야에서도 회화, 음악, 무용, 연극, 雜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金奎皓, 「唐代 經濟界 文化界의 異民族活動」, 『江原史學』 第3輯(1987), pp. 67-94.

<sup>7</sup> 邢義田, 「古代中國及歐亞文獻 圖象與考古資料中的 '胡人' 外貌」, 『國立臺灣大學 美術史研究集刊』 第9期(2000), pp. 56-65.



도3 胡人像 부분, 唐, 전체 높이 30.7cm, 1960년  
 섬서성 건현 영태공주묘(706년) 출토, 섬서역사박물관

다도 3, 18.<sup>8</sup> 현재 당대미술에 남겨져 있는 이들의 얼굴모습이 서로 대동소이한 것을 보면,<sup>9</sup> 장안에 살았던 以西의 사람들 즉 돌궐인(Turkish), 소그드인(Soghdian),<sup>10</sup> 이란인(Iranian), 아랍인(Arabian), 인도인(Indian), 토하라인(Tocharian) 등은 모두 얼굴의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복장이나 풍습도 저마다 달랐겠지만, 漢人의 눈에 비쳐진 그들의 얼굴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었거나, 혹은 이미 그들의 머리 속에는 ‘서역인’의 모습이 하나의 icon으로 자리잡은 결과로 보여진다.<sup>11</sup>

이러한 얼굴의 서역인을 소재로 한 유물은 그들의 얼굴 표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그다지 용맹성이 필요하지 않는 일상적인 표정의 서역인들이다. 대표적인 예는 공식사절로 중국에 들어온 客使이지만도 4 그밖의 대부분은 상인들이기도 18. 이외에도 광대, 그

리고 미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말을 끄는 마부라든지, 코끼리나 사자 등 서

8 실제로 서역인의 복식은 매우 다양하여 胡帽뿐만 아니라 幘頭, 帷帽 등을 썼음이 여러 기록에서 보여지며 복장도 마찬가지로이다. 尙衍斌, 「唐代西域服飾考略」, 『新疆大學學報』(1989-1), pp. 20-28.

9 서역인의 얼굴모습을 표현할 때 평면적인 그림과 입체적인 조각이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림에서는 특히 코를 크고 높게 그려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조각으로 표현할 때는 눈과 덩수룩한 수염에 비중을 둔다.

10 소그드인이 돌궐과 중국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程越, 「粟特人在突厥與中原交往中的作用」,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2卷 第1期(1994), pp. 62-67을 참조할 것. 안록산은 소그드인과 돌궐인의 대표적 혼혈인이다. 姚汝能, 『安祿山事迹』(上海古籍出版社, 1983), p. 10, 14.

11 실제로 唐律에서는 漢人과 외국인과의 사적 교류 및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唐律疏議』卷8 衛禁律, 88 ‘越度緣邊關塞’條의 疏議, p. 178 “又準主客式 ‘蕃客入朝 於在路不得與客交雜 亦不得令客與人言語 州縣官人若無事 亦不得與客相見’”) 당대 수도 장안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朴漢濟, 「唐代 長安의 공간구조와 蕃人生活」,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0, p. 61)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안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도 4 〈客使圖〉 중 왼쪽 끝에 서역인 객사, 장회태자묘 묘도 서벽, 섬서역사박물관

쪽에서 온 동물을 다루는 역할의 조련사, 무희, 약사 등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호모를 쓰고 갓이 양쪽으로 벌어진 호복을 입지만, 당에 이미 동화된 서역인들은 단령의 옷을 입고, 복두를 쓴 모습으로도 등장한다. 그러나 객사의 경우는 朝見할 때 반드시 自國의 옷을 입어야 했으며, 唐의 德宗(在位 779-805) 즉위 이후에는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수도 장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반드시 자국의 복식을 입도록 하였다.<sup>12</sup> 특히 이 시기는 원성왕(在位 785-799)의 석인상 조성시기와 맞물리는 때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부류는 武將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당대의 외국인들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장의 역할이다.<sup>13</sup> 이들은 외국인 무관이라고 해서 최고의 장군만이 아니고 훨씬 다수가 하위의 무관으로 활약하고 있었고,<sup>14</sup> 이들 무관들 중에는 주로 돌궐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sup>15</sup> 그러나 실제로 당시 武技에서는 외국인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통념

<sup>12</sup> 『唐會要』卷100 雜錄 또는 『舊唐書』卷12 德宗紀 “大歷十四年七月庚辰詔…… 廻紇諸蕃住京師者 各服其國之服 不得與漢相參…….”

<sup>13</sup> 唐의 군사력은 개국부터 玄宗代까지가 가장 강성하였는데, 이러한 군사력의 핵심은 바로 이민족계 군장이었다. 金奎皓, 「唐代的異民族系君長」,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1985), p. 1142; 卞麟錫, 「安史亂의 前提: 異民族 傭兵集團의 形成過程」, 『대구사학』 15 · 16(1973), pp. 359-393.

<sup>14</sup> 朴漢濟, 앞의 글, p. 71.



도5 무사용 부분, 唐, 높이 66cm, 섬서역사박물관

화되어 있었기 때문에,<sup>16</sup> 武人을 표현할 때는 인종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심목고비의 서역인 얼굴에 용맹성이 가미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북위부터 있어 왔는데, 당시 낙양을 확보하던 서역인의 모습을 토대로 용맹성이 돋보이는 위협적인 모습의 신장상을 조성하게 되고, 이는 이후 唐代에 전형적인 신장상의 모습으로 자리잡게 된다. 무장의 역할을 담당 하였던 서역인들은 과감히 그들의 호모, 호복을 갑옷으로 바꿔 입고 위협적인 표정을 지닌 신장상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특히 天寶(742-755)년간 이후에는 蕃將, 蕃相들이 武職에 등용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특히 “(아버지가 Soghd인이고, 어머니가 돌궐인이었던) 안록산의 건의로 당시 漢將을 대신하여 蕃將을 32명 기용하였다”<sup>17</sup>는 등의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

다. 이들의 모습은 불교와 관련된 공간이나 무덤 속 여기저기에서 간취되는데, 이를테면 무덤 내 문의 입구 양쪽에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혹은 갑옷을 입은 무사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755년 안록산의 난 이후, 당대인들에게는 돌궐인들의 잔인함에 대한 기억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게 되었고,<sup>18</sup> 그 결과 그들을 더욱 무섭고 강한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8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된 도용들은 더욱 험상궂고 무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 이

15 『貞觀政要』卷9 安邊 第36, p. 275. “自突厥頡利破後 諸部落有首領來降者 皆拜將軍 中郎將 布列朝廷 五品已上 百餘人 殆與朝士相半.”

16 朴漢濟, 앞의 글, p. 71.

17 『新唐書』列傳 卷118 列傳 第四43 韋湊 子見素 “明年, 祿山表請蕃將 三十二人代漢將, 帝許之, 見素不悅, 謂國忠曰: 祿山反狀暴天下, 今又以蕃代漢, 難將作矣 ……”

18 『新唐書』卷225 上, “乃大索三日 民間財貨盡掠之 府縣因株根索連 勾剝苛急 百姓愈騷”; 『新唐書』卷 2225 上, “祿山入北邙 聞安慶宗死 慟哭曰 我何罪而殺我子 時陣留將士降者夾道近萬人 祿山皆殺之 以快其忿.”

를 잘 반영해준다<sup>15</sup>. 그러나 얼굴은 훨씬 더 무섭게 변했어도, 기본적인 얼굴모습, 허리에 얹은 왼손이나 붙끈 권 오른손의 모습 등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 안록산의 난 이후 일반인들의 서역인에 대한 관념이 이들 신장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신장상과 서역인들 간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 III. 통일신라시대의 ‘서역인’ 접촉 및 도래 가능성

국제항인 울산만이 문호의 역할을 하였던 통일신라에는 이곳을 통해 갖가지 외래문물들이 유입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역인의 직접 도래를 짐작케 해주는 예로 항상 거론되는 처용의 설화<sup>19</sup>에서부터 저 멀리 돈황석굴 벽화에는 신라인으로 추정되는 사절상<sup>20</sup>이 있고, 또 서역인의 모습을 모델로 했다는 원성왕릉의 무인상, 국립경주박물관의 서역인 석조상 등은 수도 없이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밖에 義淨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혜초 스님을 위시한 한국 국적을 가진 승려들의 인도여행,<sup>21</sup> 그리고 『海東高僧傳』의 安弘이 3명의 서역승과 2명의 漢僧과 함께 귀국하였다는 기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라와 서역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직접 교류에 관한 문헌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문헌상으로는 입증할 길이 전혀 없다. 통일신라에 서역인 사절이 왔다는 기록은 더구나 없다. 이를 ‘문헌사료 不在’의 탓으로 돌리고, 한 걸음 양보하여 만약 서역인 사절이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서역인 사절을 왕릉 앞 좌우에 배치하여 능을 수호하는 역할을

<sup>19</sup>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處容郎 望海寺.

<sup>20</sup> 文明大, 「돈황에 남아있는 신라인의 족적」, 『신라인의 실크로드』(백산자료원, 2002), pp. 21-38; 권영필, 『렌투스 양식의 미술』(사계절, 2002), pp. 228-242; 文明大, 「실크로드의 신라사절상」, 『중국대륙의 문화』 1 古都長安(한·연, 1990), pp. 181-191.

<sup>21</sup> 慧業, 慧輪, 玄恪, 阿離耶跋摩, 玄太(泰), 玄遊, 慧超, 無漏, 元表, 悟眞(밀줄 필자. 밀줄친 승려는 당으로 돌아온 경우). 673-685년 인도에 있었던 唐僧 義淨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는 인도로 간 승려 중 신라승 7명, 고구려승 1명(阿離耶跋摩 慧業 玄太 玄恪 慧輪 玄遊, 失名 2명)을 들고 있다(『大唐西域求法高僧傳』, 『新修大藏經』 第 五十一卷). 그밖에 『宋高僧傳』 및 『大唐青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 등 참조.

말도록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하였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래도 서역인 도래의 또 다른 가능성을 알려주는 남겨진 실마리로 처용설화를 인용하곤 한다. 실제로 처용의 설화는 통일신라시대 서역인 도래의 가능성 중 하나로 매번 언급된다. 그러나 현강왕(875-886)대의 처용설화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고 처용을 서역인이라는 실존 인물로 보려고 하는 시도<sup>22</sup>는 논리적 근거의 빈약으로 '지나치게 도식적이거나 비약적인 논리에 기초한 발상'으로 보아 국문학계에서 설득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이다.<sup>23</sup>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하는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원성왕릉의 석인상과 같은 2차 사료들이 있기 때문이다.<sup>24</sup> 남겨진 2차 사료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우선 통일신라에서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났던 10명 승려의 행적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신라에서 인도를 향해 출발했던 이는 한 명도 없다. 모두 먼저 당으로 건너가 당에서 수년간 수학한 후, 인도로 떠나는 唐僧들의 풍조에 영향을 받아 그들과 함께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목적지가 서역이 아닌 인도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세가 서역을 통과하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sup>25</sup> 해로를 통해 인도로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유명한 혜초의 경우도 20세가 되기도 전에 당에 들어가 수년간 지내다가 인도로 구도여행을 떠났으며,<sup>26</sup> 당으로 돌아온 이후 생을 마칠 때까지 신라로 돌아온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혜초는 출신만 신라일 뿐이지 실제로 생의 거의 대부분을 당에서 보내고 있어 혜초가 신라에 얼마만

22 이용범, 「처용설화의 一考察: 唐代 이슬람商人과 新羅」, 『震檀學報』 32輯(진단학회, 1969), pp. 6-38.

23 현재 150여 편에 달하는 처용 관련 연구가 있지만, 그 중 단 1편(이용범(1969), 앞의 글, pp. 6-38)만이 처용을 실존 인물(외래인)로 보고 있을 뿐이다. 金榮洙, 「처용가연구 재고: 연구사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7집(1990), pp. 21-22; 金慶洙, 「처용가의 연구사적 검토」,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7집 신라문학의 신 연구(1986), p. 139.

24 이 글에서 '2차 사료'라는 표현은 원성왕릉 석인상의 경우 원성왕의 재위기간에 조성된 것인지 승하 후 조성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승하 후에 조성되었어도 정확히 몇 년 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25 荒川正晴, 「中央アジア地域における唐の交通運用について」, 『東洋史研究』 第五十二卷 第二號(1993); 島崎昌, 「遊牧國家の中央アジア支配と中國王朝」, 『隋唐時代のトウルキスタン研究: 高昌國史研究を中心として』(東京大學出版會, 1983), pp. 572-573.

26 桑山正進 編,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2); 方相鉉, 「혜초의 중앙아시아 歴訪考」, 『경희사학』 20(1996), pp. 2-33; 김영태, 「신라승 혜초에 대하여」, 『가산학보』 3(1994), pp. 12-31; 무함마드 칸 수, 「慧超의 西域紀行과 8세기 西域佛敎」, 『精神文化研究』 54(1994), pp. 25-47; 고병익,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東西交涉史의 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pp. 48-68; 고병익, 「『왕오천축국전』 해설」, 『동아시아문화사논고』(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 3-20; 고병익, 「혜초의 印度往路」, 『동아시아문화사논고』(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 21-61.

큼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다. 나머지 9명의 구법승들도 모두 경우가 비슷하여 당으로 되돌아와 당에서 입적한 승도 그나마 玄太와 無漏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도에서 객사하였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혹은 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7</sup> 물론 이름을 남기지 못한 또 다른 신라승들이 처음부터 신라에서 인도를 목적으로 여행을 떠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들이 도중에 중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 땅에 직접 서역에서 문물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對중국의 경우는 달라 평균 약 2년에 1번 꼴로 공식사절을 당으로 보냈다.<sup>28</sup> 이 같은 공식사절 이외에 상인, 구법승, 유학생, 숙위자, 그밖의 비공식사절 등의 경우를 합하면 그 횟수가 훨씬 많았을 것임은 자명하다.<sup>29</sup> 이들 중 입당구법승의 경우, 이름을 남기고 있는 숫자만 45명이며, 그 중 唐에서 객사한 경우가 7명, 그리고 행방을 알 수 없는 12명을 제외하고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26명이 통일신라로 되돌아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물론 이때 신라승이 귀국하는 길에 당에 머무르고 있던 서역인들과 함께 돌아왔을 가능성,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들이 이 땅을 찾아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서역인들이 이 땅에 왔다 안 왔다, 숫자가 많다 적다는 사실은 이 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라인들은 장안에 거주하고 있던 서역인들을 보았을 테고, 또 서역인을 모델로 하여 만든 인물상이나 신장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뇌리에는 이미 당에서 정형화되어버린 서역인의 모습이 박혀 있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이 땅에 남겨진 서역인 얼굴의 유물들은 혹시 이미 당에서 만들어진, 상징화되어버린 서역인의 얼굴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한다. 실제로 통일신라에 남겨진 서역인 얼굴의 조

<sup>27</sup> 임영애, 「통일신라 불교조각에 나타난 서역양식 시론」, 『미술사학 VIII』(대우학술재단, 1996), pp. 195-227; 임영애, 「통일신라 불교조각에서의 소위 '서역' 영향」, 『신라인의 실크로드』(백산학회, 2002), pp. 157-182.

<sup>28</sup> 당대 271년 동안 통일신라에서는 대략 135회에 달하는 공식사절을 보내었다. 文明大, 「韓國古代彫刻의 對外交渉에 대한 研究」, 『예술논문집』 제20집(대한민국 예술원, 1981), pp. 91-98, 表3 참조.

<sup>29</sup> “중국의 수도 거리를 왕래하는 외국인들 중에 많은 신라인이 섞여 있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엔닌의 일기와 다른 많은 역사적 자료는 신라인들이 거기에 머무는 외국사람 중에서 가장 많았고, 다른 외국인들보다도 철저하게 중국인들의 생활에 들어가 그들 자신의 활동을 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 당나라의 후원으로 신라가 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게 되자 신라에서 장안으로 가는 조공사절단의 지속적인 파견이 이루어졌다. 때로는 한 해에 한 번 이상의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703년부터 738년까지 36년간 45회 이상의 사절단이 파견되었다고 생각된다.” E. O. 라이사워 著, 조성을 譯,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한울, 1991), p. 273; 金文經, 「在唐 新羅人の 集落과 그 構造: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李弘植教授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1969).

각들은 唐의 서역인상들과 동일한 모습이어서 주목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서방의 나라들과 직접 교류를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은 9세기 후반부터 보이는데, 9세기 후반부터 14-15세기까지 17명의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20편의 신라 관련 기술이 있다.<sup>30</sup> 이들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은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ādhbih, 820-912)의 것으로, “중국의 맨 끝 광주의 맞은 편에는 많은 산과 왕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신라국이다. 이 나라에는 금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일단 들어가면 그곳의 훌륭한 때문에 정착하고야 만다. 이 나라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sup>31</sup>라고 적고 있으며, 9세기 아랍인 사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알 마스오디(Al masūdī, ?-965)는 신라에 간 아랍사람은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토지가 비옥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보석이 일품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전한다. 이러한 문헌기록들은 신라에 대한 소식이 멀리 아랍 지역까지 전하여졌음을 알려주는 단적인 기록으로 인용되어 왔다.<sup>32</sup> 그러나 주된 내용들이 지리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전설적이며,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많고, 또 신라 멸망 후에도 여전히 ‘신라’라고 부르고 있는 점 등에서 체험에 의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왕래하던 아랍상인의 傳聞을 기초로 한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sup>33</sup>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신라’라는 나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IV. ‘서역인’ 인가 ‘서역인 이미지’ 인가

통일신라에는 소위 서역인 얼굴을 한 石人 조각들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元聖王陵(掛陵)<sup>34</sup>의 무인상(257cm)이 있고 또 1, 또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전시관에 있는 서역

<sup>30</sup> 이희수, 『한·이슬람교류사』(문덕사, 1991), pp. 59-74.

<sup>31</sup> Ibn Khurdādhbih, *Kitābu'l Masālik wa'l mamālik* (886), ed. de Goeje M. J. (Leiden, 1889), p. 70.

<sup>32</sup> 무함마드 칸수, 「중세 아랍인들의 新羅地理觀」,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5집, 신라의 대외관계사 연구(1994), pp. 349-382; 이희수, 앞의 책, pp. 57-74; 김정위, 「중세 중동문헌에 비친 한국상」, 『한국사연구』 16(1977), pp. 33-34.

<sup>33</sup> 고병익, 「한국과 서역」,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대사』(1984), p. 83.

<sup>34</sup> 폐릉이 원성왕릉으로 비정된 이후(변영섭, 앞의 글, p. 180) 지금까지 폐릉으로 불려왔던 능이 원성왕릉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 얼굴의 부조상도 2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론의 여지없이 원성왕릉의 무인상이다.<sup>35</sup> 원성왕릉에는 4구의 석인상이 있다. 그 중 2구는 문인석으로,<sup>36</sup> 나머지 2구는 무인석이라고 불려져 왔다.<sup>37</sup> 이 중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무인석으로 불려왔던 석인상인데, 이 석인상은 부리부리한 커다란 눈과 코, 술이 많은 수염을 지닌 용맹한 모습이며, 머리에는 띠를 둘러 뒤에서 묶고 있다. 몸에는 團領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둥근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옷차림은 당나라 사람들이 즐겨 입던 복장으로 이 석인상과 당과의 영향관계를 짐작하게 해준다.

원성왕릉은 기존의 사찰인 鵠寺를 허물고 그 위에 조성된 것이다.<sup>38</sup> 원래 곡사는 원성왕의 외척인 金元良이 창건한 사찰인데, 그것을 없애고 그 위에 다시 능을 조성하기로 하였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외척을 멀리한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佛力を 빌어 왕실을 굳건히 하겠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송복사 비문에 의하면 “능으로 하여금 海域의 웅지를 접거하게 하고, 절로 하여금 雲泉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하면 우리 왕실의 복이 높이 솟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sup>39</sup>

이외에도 실제로 원성왕이 불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원성왕의 부모 및 친인척들 모두 불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원성왕의 父 孝讓은 鑿藏寺를 창건하였으며,<sup>40</sup> 원성왕의 모후와 이모는 758년 갈항사의 탑을 세웠고,<sup>41</sup> 원성왕

35 원성왕릉에 관해서는 이재중, 앞의 글, pp. 820-823; 권영필, 앞의 글, pp. 164-180; 齊藤忠, 『東アジア葬墓制の研究』(第一書房, 1987), pp. 525-534; 박경원, 「統一新羅시대의 墓儀石物 石人 石獸 연구」, 『고고미술』(1982), pp. 168-190; 변영섭, 앞의 글, pp. 57-82; 大坂金太郎, 「掛陵考」, 『朝鮮學報』 39·40(1966), pp. 10-17 참조할 것.

36 지금까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인상으로 불려온 무인상은 발목 사이에 칼 끝이 분명하게 보이고, 또 등 뒤에 갑옷의 표현이 있어 문관상이 아님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朴敬源, 앞의 글, pp. 168-190). 이 석인상은 아직 文武를 구별해서 각각의 석인상을 따로 세우기 이전의 양상인데, 중국의 경우 文武를 완전히 구별하여 문인은 홀을, 무인은 검을 권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泰陵(761년) 이후이다. 李毓芳, 「唐陵石刻簡論」, 『文博』(1994.3), p. 36.

37 지금까지 문인석이라고 불려왔던 원성왕릉의 석인상을 武臣像으로, 서역인상은 胡人 衛卒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재중, 앞의 글, p.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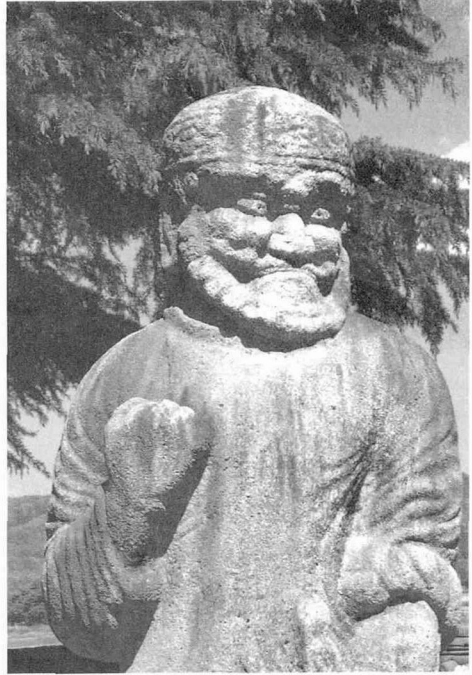
38 『崇福寺碑』 “……且驗是仁祠 本隸威里 誠言去卑就峻 捨舊謀新 ……” 『朝鮮金石總攬』, pp. 120-140; 李智冠, 『譯註歷代高僧碑文』 신라편(1993).

39 『崇福寺碑』 “……捨舊謀新 使幽庭據海城之雄淨 刹擅雲泉之嶽 則我王室之福山高峙 ……”

40 『三國遺事』 卷3 塔像 鑿藏寺 彌陀殿 “서울 동북쪽 20여리 쯤 되는 暗谷村 북쪽에 鑿藏寺가 있으니 신라 38대 원성대왕의 아버지 孝讓 즉 추봉된 明德大王이 숙부 波珍滄을 추모하여 세운 것이다.”

41 “二塔 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娒姊妹三人業以成之 娒者零妙寺言寂法師在 娒者照文皇太后君姊 娒者敬信大王姊在也” “두 탑은 天寶17年 戊戌에 세웠다. 娒姊妹 3명의 업으로서 이루어졌다. 娒者는 靈妙寺의 言寂法師이

의 외삼촌은 양지스님의 천왕상으로 유명한 靈妙(廟)寺의 言寂法師이다. 이러한 원성왕 계의 佛事활동은 그의 왕위계승에 중요한 뒷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성왕은 785년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승정기구인 政法典<sup>42</sup>을 성립<sup>43</sup>하여 불교와 관련된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었다. 원성왕과 관련된 사찰만 해도 무장사, 갈항사, 영묘사 그리고 곡사를 허물고 옮겨 새로 창건한 승복사,<sup>44</sup> 또 원성왕 즉위 10년(794)에 창건한 奉恩寺<sup>45</sup>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의 사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원성왕이 불교계와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도 6 도 1의 얼굴부분

실제로 원성왕은 사후 화장을 원했으며, 승하 후 곧 봉덕사 남쪽에서 화장되었다.<sup>46</sup>

통일신라 27명의 왕 가운데 화장을 한 경우는 문무왕, 효성왕, 선덕왕, 원성왕에 불과한데,<sup>47</sup> 모두 화장 후 동해 앞 바다에 수장하거나 산골이었지만, 원성왕만은 산골하지 않고 봉분을 마련하였다.

며, 姉者는 昭文皇太后님이시며, 妹者는 敬信太王 姨母시다.” 「갈항사 석탑기」, 『금석문』 3, p. 277; 文明大, 「金泉 葛項寺 석불좌상의 고찰」, 『동국사학』 15·16(1981), pp. 5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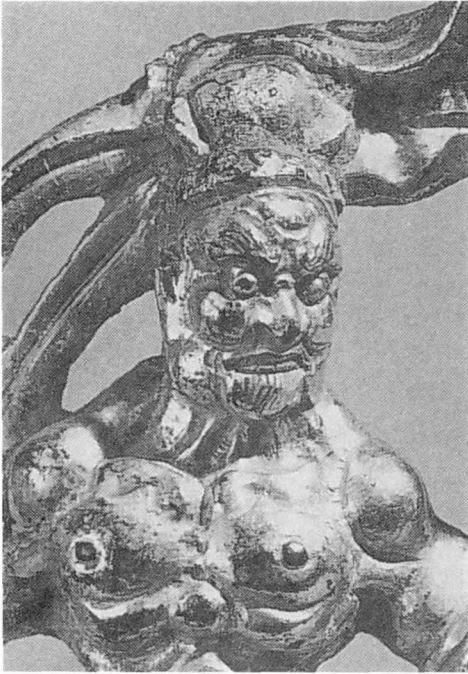
<sup>42</sup> 정법전은 중앙 및 지방에서의 造塔, 造寺 등의 불사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郭承勳, 「신라 元聖왕의 政法典 정비와 그 의미」, 『진단학보』 80(진단학회, 1995), pp. 33-61.

<sup>43</sup> 政官(혹은 政法典이라고도 함)은 처음에 大舍 1명, 史 2명으로써 한 官司를 삼았는데, 元聖王 元年에 이르러 처음으로 僧官을 두고, 僧侶 중에서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충당하였다. 무슨 까닭이 있으면 같고, 一定한 年限이 없다. 『三國史記』 40, 雜誌 9, 職官 下.

<sup>44</sup> 「崇福寺碑」, 『朝鮮金石總攬』, pp. 120-121.

<sup>45</sup> 『三國史記』 卷第10 元聖王 “十年……秋七月 始創奉恩寺……”: 원성왕이 창건하였다는 봉은사는 成宗(在位 1469-1494)의 비 貞顯王后 윤씨가 見性寺를 중창하여 새롭게 개장한 지금의 봉은사(『奉恩本末寺誌』 “朝鮮燕山 君四年戊午 貞顯王后 爲成廟宣陵 重創陵東谷見性寺 大營佛事 增修舊制 改稱奉恩寺”)와는 무관하다.

<sup>46</sup> 『三國史記』 卷第10 元聖王 “冬十二月二十九日 王蒙 諡曰元聖 以遺命 舉柩燒於奉德寺南.”



도7 금강역사상, 唐



도8 신장상의 얼굴부분, 東大寺 西大門勅額, 8세기

아울러 원성왕릉은 당의 묘제를 기본으로 했지만, 나름대로 독창성을 발휘하여 당릉에는 없는 십이지호석, 난간, 상석 등이 능묘에 표현되어 있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특히 통일신라의 묘제에 보여지는 불교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고유섭 선생이 능의 구조와 인도의 스투파를 연결시켜 본 이후,<sup>48</sup> 능묘 주변의 사자상, 십이지상들을 불교와 관련시킨 선학들의 연구가 있어 왔다.<sup>49</sup>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원성왕릉의 구성에 불교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 미칠 수밖에 없었음을 쉽게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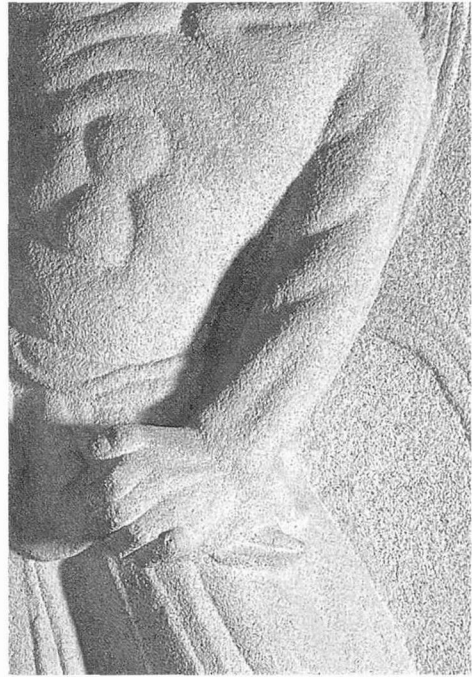
47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孝成王 “…… 王薨 諡曰孝成 以遺命 燒柩於法流寺南 散骨東海 …….”;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宣德王 “…… 死後 依佛制燒火 散骨東海 至十三日 薨 諡曰宣德.”

48 高裕燮, 『고유섭전집』 4(松都古蹟, 29), p. 273.

49 박경원, 앞의 글, pp. 180-189; 강우방, 「통일신라 십이지상의 양식적 고찰」, 『원융과 조화』(열화당, 1990), p. 366. “불교 건조물이 아닌 능묘에서 비불교적 형상이었던 십이지용에 불법수호신의 형식을 과감히 채용함으로써 그 당시 통일신라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호국불교와의 상관관계를 넉넉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도9 도1의 부분



도10 금강역사상 부분, 경주 석굴암

이러한 전제 위에 원성왕릉의 무인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무인상은 수염이 덩수룩한 얼굴모습이나, 커다란 눈, 코 등의 모습에서 당의 인왕상과 얼굴의 기본형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사천왕상과도 마찬가지로이다. 우선 이들은 금강역사나 사천왕과 같은 신장상의 얼굴모습을 하고 있다<sup>도6,7,8</sup>. 일반적으로 능묘 앞 석인상들이 모두 직립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이 무인상들은 몸을 비틀어 공격적인 자세로 얼굴은 입구쪽을 바라보고 있다. 또 한 손은 방망이를 쥐어 허리에 얹고 있고, 나머지 손은 가슴까지 들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 금강역사의 자세와 같다. 건어올린 소매 밑으로 드러난 근육질의 팔이나, 손등 위의 뼈대와 힘줄 역시 금강역사상에서 익숙한 표현들이<sup>도9,10,11</sup>. 또 이들은 입구 좌우에 한 구씩 세워져 무덤을 지키고 있다. 이들의 포즈나 위협적인 얼굴모습, 손에 무기를 들고 무덤을 지키는 모습은 이 무인상이 불교의 수문신인 금강역사를 염두에 두고 그 이미지를 빌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만약 그가 지금까지 논의 되어 왔던 것처럼 단순히 서역인을 모델로 해서 만든 서역인상이라거나 서역에서 온 객사라면, 것처럼 분노의 얼굴로 조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몸을 비틀 이유도, 또 방망이를 들고



도 11 금강역사상 부분, 용문석굴 甯陽中洞

무덤을 수호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무인상이 왜 일반적인 금강역사의 복장과 다르며, 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唐代 서역인상에는 머리띠를 두른 예가 현재까지는 발견된 바 없다.<sup>50</sup> 그런데 오히려 唐人들 가운데는 단령을 입고 머리띠를 두른 예들이 보인다도 12, 13. 흔히 머리띠는 사산조 왕공귀족들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되지만,<sup>51</sup> 그렇다고 왕공귀족들이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역인을 실견하고 이들을 모델로 하여 만든 중국 서역인상은 대부분 자국의 복장인 호복과 호모를 쓰고 있는데, 통일신라의 서역인이 唐人의 복식인 단령의 옷을 입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통일신라인들이 서역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장회태자묘 벽화의 〈객사도〉를 보면 외국인들은 기본적인 얼굴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도 4. 그러나 머리모양이나 복식, 지물, 그리고 자세 등에서는 가능한 한 자국 복식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간취된다. 唐代 미술에 나타난 서역인들의 얼굴모습은 비록 정형화되었지만, 누구든지 보면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복식에 차별화를 두고 있어 唐人들은 漢族과는 다른 이방인의 면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약 통일신라인들이 서역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또 서역인을 의도하고 그를 무덤

<sup>50</sup> 이에 관해 “신라인들이 그 당시 이란인을 직접 보았던 것을 근거로 했음이 틀림없다. 일반적인 胡人の 형태는 唐制를 모방했다고 하더라도, 머리띠와 같은 특수한 장식에 있어서는 이란인들의 풍습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唐陶俑 가운데는 머리띠를 두른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란계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흥미 있는 주장이 있다. 권영필, 앞의 글, p. 71.

<sup>51</sup> 桑山正進, 「サ-サン冠飾の北魏流入」, 『オリエント』 第20卷 第1號(1977), p. 25.



도 12 도 1의 부분



도 13 〈男裝侍女圖〉, 新城長公主墓(663년 사망),  
섬서성 禮泉縣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면 團領을 입고 머리띠를 두른 혼동된 모습이 아닌, 서역인임을 상징하는 복식, 즉 호모를 쓰고 것이 벌어진 호복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통일신라인들이 서역인 그 자체를 의식하고 조성하려고 했다면,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방인의 모습을 인종별로 모두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고, 서역인의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복장의 형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장의 특징을 무시하고 얼굴만을 강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물론 머리띠를 두르고, 단령의 옷을 입고, 허리에 주머니를 차고 있는 이런 모습은 당에서 동화되어버린 서역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복식착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고,<sup>52</sup> 특히 외국사절들에 대해서는 훨씬 이전부터 朝覲

<sup>52</sup> 註12 참조.



도 14 신장상 門扉石, 경주 서악동고분 출토, 높이 150.5cm, 국립경주박물관

때에는 반드시 본국의 복식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을 상기해 볼 때 적어도 이들이 왕릉 앞에서 객사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과 국적을 가장 잘 나타낸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원성왕릉의 석인상이 금강역사의 이미지를 빌려온 것임을 입증해주는 또 다른 증거로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서악 능묘 문비에 새겨진 금강역사상을 들 수 있다<sup>14</sup>. 이 금강역사는 불교와 관계없는 능묘의 문비에 수문신의 역할로 새겨진 것이다. 덩수룩한 수염에 귀에는 둥근 고리모양의 귀걸이를 달고, 머리에는 띠가 둘러져 있으며, 손에는 길다란 무기를 들고 있다. 또 연꽃대좌를 밟고 있는 발목에는 둥근 고리장식이 있다. 특히 이 금강역사의 얼굴모습은 경주 구정동 방형분에서 출토된 隅柱石의 석인상이나 동국대박물관 소장의 신장상 頭部와도 동일한 모습이어서

주목된다<sup>15, 16, 17, 18</sup>.

이외에도 원성왕릉의 무인상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다. 우선 원성왕릉에는 불교의 사자상과 동일한 모습의 네 마리 사자상이 있다. 특히 사자들의 쭈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라든지 앞다리 뒤쪽으로 말려 올라간 털, 뒷다리의 곡선 형태 등은 다보탑의 사자상과 동일하다<sup>19, 20</sup>. 또 납석제 십이지상의 경우 현덕왕릉(826년경)에서 출토된 것인데, 이 십이지상이 입고 있는 갑옷이 감은사탑 출토 사리기 사천왕상 갑옷과 동일한 형태여서 서로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sup>21, 22</sup>. 이처럼 원래 비불교적 형상인 십이지상이 불법수호신인 사천왕상의 형식을 과감히 채용하여 능묘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역시 당시 능묘조각에 미친 불교조각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그밖에도



도 15 도 2의 얼굴부분



도 16 도 14의 얼굴부분



도 17 신장상 頭部, 동국대박물관



도 18 胡人像의 얼굴부분, 唐



도 19 원성왕릉(掛陵) 사자상



도 20 불국사 다보탑 사자상



도 21 남석제 십이지상, 826년경, 높이 42cm,  
憲德王陵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도 22 감은사탑 출토 사리기 사천왕상(多聞天),  
682년경, 높이 21.6cm, 국립중앙박물관

난간과 회랑을 두른 인도의 스투파와 같은 능묘의 구조 등 능묘 곳곳에서 불교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서악의 능묘 문비에 금강역사를 조성한 예가 있다는 사실, 또 8세기 까지 불법 수호를 위한 수문장으로 가장 환영받은 신장이 바로 금강역사였던 점도 무관하지는 않다.<sup>53</sup> 아울러 원성왕의 외삼촌 言寂法師가 머물렀던 靈妙(廟)寺가 양지스님이 만든 천왕상으로 유명한 곳이고 보면 원성왕릉 무인상의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은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성왕릉 무인상의 용맹한 얼굴모습, 견어올린 소매 밑으로 드러난 강인한 팔, 방망이, 몸을 틀어 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이 무인상을 만든 조각가가 이 상이 '서역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무덤을 지키는 수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한국 고대미술 속의 서역인식

한국 고대미술 속에서 서역인들은 적지 않게 등장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고구려 고분벽화의 씨름하는 서역인일 것이다. 고구려 고분 속의 死者는 씨름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이겨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그들이 원하는 세계란 서왕모가 거주하는 곤륜산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서방의 서역인과 싸워서 이긴다면 서왕모의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같은 이유로 씨름하는 두 인물 중 한 사람을 서역인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54</sup> 중국 고대 화상석, 화상전에서도 같은 이유로 서역인들이 등장한다. 당시 제작자가 실제로 서역인을 보았든 보지 않았든 간에 고대미술 속의 서역인들은 상징성을 지닌 채 표현된다.

이후 '서역인 이미지'는 중국에서 icon화되었다. '서역인' 하면 커다란 눈과 코에 덩수

<sup>53</sup> 8세기까지는 신장상 중 인왕의 비중이 크지만, 9세기에는 사천왕이 인왕상보다 현저히 그 숫자가 많아진다. 文明大, 「한국 탑 부조상의 연구(1): 신라 仁王像(金剛力士像)考」, 『불교미술』 4(동국대박물관, 1979), pp. 102-103.

<sup>54</sup> 임영애,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대중국의 서왕모 신앙: 씨름그림에 나타난 '西域人'을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제10집(1998), pp. 157-179.

룩한 수염, 그리고 용맹한 표정이 먼저 떠오른다. 이미 icon화된 '서역인 이미지'는 자국의 복장을 갖춘 모습으로, 혹은 唐人의 복장이나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바뀌며 나타난다. 많은 수의 서역인이 이 땅에 직접 왔고, 이들 도래한 서역인을 직접 모델로 하여 무인상을 조성하고자 했더라도 이미 唐에서 정형화된 icon이 존재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보다는 기왕의 '서역인 이미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실제로 통일신라 미술 속의 서역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실견을 토대로 제작했다고 하기에는 당의 서역인 모습과 너무 닮았다.

그렇다면 唐의 서역인과 꼭 닮은 이 무인상이 왕릉 입구 좌우에 한 구씩 서서 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후에는 이미 서역인의 얼굴로 조형화되고 있던 신장상 특히 금강역사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신라인들에게 원성왕릉의 무인상은 '서역인'을 조각한다는 인식보다는 '서역인 이미지'를 지닌 불교의 수문신 금강역사를 인식하고 조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원성왕릉의 무인상은 당에서 정형화된 '서역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당시 유행하던 서역인 얼굴의 금강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도래가 모두 미술 속에서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sup>55</sup> 이미 당나라에서 정형화된 '서역인 이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통일신라인들이 과연 '서역인 이미지'를 외면하고, '서역인'의 모습을 새롭게 창출해내려고 하였을까. 감은사 사리기의 사천왕상 얼굴이 서역인의 얼굴이지만, 또 통일신라의 금강역사상들이 서역인의 얼굴이지만 우리는 이들을 보고 서역인이 직접 도래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원성왕릉 서역인 얼굴의 무인상 역시 같은 범주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주제어: 원성왕릉, 괘릉, 서역인, 통일신라, 唐

<sup>55</sup> 11세기에 아라비아의 상인 수백 명이 수 차례 이 땅에 왔을 때도 이들의 특이한 얼굴을 미술품으로 남긴 예는 지금까지 발견된 바 없다. 『高麗史』卷5 世家 第5 顯宗15年(1024) "9월에 大食國의 悅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同書』 권6 世家 第6 靖宗6年(1040) "11월 병인일에 大食國의 드내기 상인 保那蓋 등이 와서 水銀, 龍齒, 占城香, 沒藥, 大蘇木 등 각종 물자를 바쳤다. 왕이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客館에서 후하게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금과 비단을 후히 주라고 하였다."

## “The Western Region People” or “Image of the Western Region People”?

Yim Young-ae

We have already seen lots of studies revealing that “the Western Region people” had come to Korean peninsula in the period of Unified Shilla (統一新羅). Some studies proposed the possibility that the Unified Shilla played an active role in drawing many alien goods from Western Region by direct communicating with them. As a result, we often make a picture of the Unified Shilla, that is, a lot of Western Region people had stalked along the street with the Shilla people. So they concluded that whole statues similar to the Western Region people could have been made after the people whom the Shilla people had really seen.

I don't want to repeat this controversial debate whether they had come to this place or not. However, I put my stress on the fact that seeing them and making into a certain image are totally different things. Moreover, there had been ready-made images about these Western Region people in China, where the Tang (唐) people had seen crowds of them for more years than the Unified Shilla people. Then, is it probable that the Unified Shilla people neglect this image which many monks and merchant brought to them, and made their own special image?

At first, it was in China that “Western Region people image” was made as an icon. Their characteristics are obvious and conceptualized. They have big eyes and noses with full of beards, and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whole body motions remind us of brave

warriors. They sometimes wear their own clothes, but more often wear Tang-style clothes or armours. Actually, the “Western Region people” statues of the Unified Shilla are so similar to the Tang-style “Western Region people image” that we could hardly say it would have made by seeing them directly in Shilla.

A warrior statue is standing left and right at the entrance guarding a royal Unified Shilla tomb. This seems to be Tang-style “Western Region image”. The reason why this “Western Region warrior” guards this royal tomb is not because he came from Western Region, but because Vajrapā i was needed to guard the sacred place. And this Vajrapā i’s image had been fixed into a Western Region people’s image in Tang period. Therefore, the Unified Shilla people should have copied the ready-made Vajrapā i according to the trend, in result it is natural that it took Tang-style.

Communication with other people does not necessarily make a new image. The Unified Shilla people who already knows about Tang-style “Western Region people image” would have not neglected this fixed image without any special reason. As we do not say Vajrapani was made after the real Western Region people, we should be careful to say a warrior statue in the Wonsung (元聖王) royal tomb was made after the real Western Region people.